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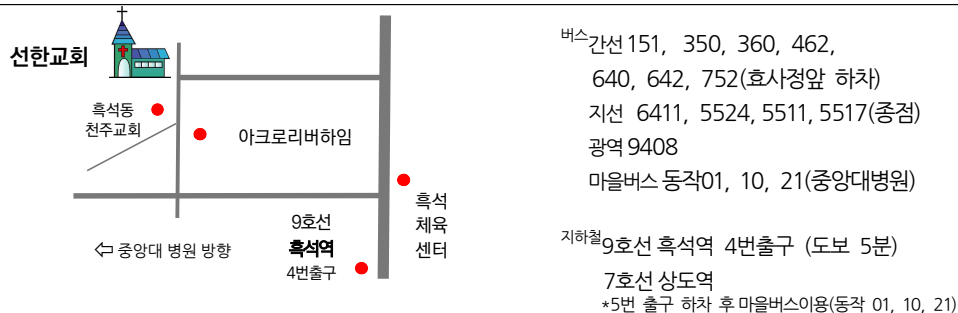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 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육목사 권 인 혁	국 내 선교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6장 (통일찬송가 14장)			
	교 독 문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찬 양 과 경 배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요한일서 1장 8절 ~ 10절			
	설	교		만일 죄를 자백하면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편도선 구문서 구영서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윤국로 집사			
말		씀	성경오류논쟁 8강 (눅3:23, 34-38)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사회자 : 김진만 전도사		
	십자가 (고전 1:18-25) 김진만 전도사				

-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선한교회 찬양축제

- 일시: 2019년 10월 27일 오후예배(3시 30분)
 - 참가 대상: 부서별(필수), 셀별(자원), 가정별(자원)
 - 시상 범위 및 내역: 각 영역별 금상, 은상, 동상(총9) +인기상(1)
 금상(10만원), 은상(7만원), 동상(5만원), 인기상(5만원)
 - 심사기준: 다인원, 음악성, 창의성, 준비성, 호응도
 - 참가팀은 9월 27일까지 성가대 총무(백미경집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배 일 정

다음주(29일) 오후예배는 셀가족모임으로 드립니다.
3. 담 임 목 사 동 정

담임목사 교단 109차 총회참석
일시: 9월 23일(월)~26일(목)
4. 사 역 자 일 정

9월 30일(월)~10월 4일(금) 김진만 전도사 휴가

9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9월 1일		성경오류논쟁 6강			임춘배 목사	
9월 8일		성경오류논쟁 7강			임춘배 목사	
9월 15일		추 석			다 함 께	
9월 22일		성경오류논쟁 8강			임춘배 목사	
9월 29일		셀 가 족 모 임			다 함 께	

2019년 성경강론 범위						
9/22	9/23	9/24	9/25	9/26	9/27	9/28
	이사야 19	이사야 20	이사야 21장	이사야 22장	이사야 23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주간의 되기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주간의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주간의 삶이 되기를

[가정예배] 복음을 위한 좋은 환경

찬송 :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통 466장)

본문 : 고린도전서 11장 2~12절

말씀 :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배경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물건들이 놓여 있는 사진을 본다면 아무리 인물을 잘 찍었더라도 좋은 사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교회 환경이 평안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정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하는 자의 언행이 일치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의 이미지가 아름다울 때 우리의 복음은 효력이 큰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하나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왜곡된 복음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거나,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 값진 복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조정하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에 대한 것, 다른 것은 성찬식의 질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남자답고 여자다운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로 혼란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무엇을 쓰지 않아야 하고(4절)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해야 했습니다.(5절) 이것이 당시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질서였습니다.

머리 모양에 대해 교회가 민감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한 여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간음으로 정죄 받은 여자를 의미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두 여성 중 남자 역할을 하는 파트너는 머리를 짧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로마의 사제나 철학 교사들은 머리를 감아올릴 정도로 장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긴 머리를 한 남자가 앞에 서면 로마의 사제나 철학 교사 같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 사역자들이 긴 머리를 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도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11절) 서로 의존해야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질서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정하신 것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문화 안에서 적절하게 표현돼야 합니다. 문화를 초월한 복음을 각자의 문화 안에서 적절하게 선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의 이견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흐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점점 더 아름답고 풍성하고 분명한 복음이 되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말씀의 기준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만일 죄를 자백하면 (요일 1:8-10)

서 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 론

1. 거짓된 주장과 바른 가르침

- (1)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 행하지 아니함이다(6절)
- (2)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8절)
- (3)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이다(10절)
- (4)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9절)

2. 교훈

- (1)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자.
- (2) 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라.
- (3)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2:1).

결 론

죄로부터 단호히 돌아서서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고상돈 장로
헌 금 위 원	편도선 구문서 구영서	편도선 구문서 구영서
오후예배 기도	윤국로 집사	셀가족모임

매일 성경 강독		애굽에 임할 심판과 은혜의 회복	날짜 : 9월 23일
찬양	인애하신 구세주여 (찬송가 279장 / 통일 찬송가 337장)		
통독	이사야 19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애굽이 앗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보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애굽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황폐화시키며 어떠한 애굽의 현자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할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다(1-15절). 결국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이다(16-25절).		
생각해보기			
1	애굽의 쇠퇴와 회복 (1) 1-17절: 애굽인들은 내란과 잔인한 군주들의 압제에 의해 고통을 겪게 되고, 젖줄인 나일강이 말라버림으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 존경과 추앙을 받던 지도자들이 조롱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 (2) 18-25절: 애굽의 다섯 성읍이 여호와 신앙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애굽으로 인해 앗수르 사람도 여호와를 경배하게 되고, 여호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임 (3) 세계평화는 군사력을 앞세운 전쟁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여호와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핵심 단어	2절. 격동하사. 어떤 길이나 구멍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이 멸망하도록 내분을 일으키실 것임을 가리킨다. 10절. 근심하리라. 애굽에 닥친 재난으로 인해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며 상심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찬양과 기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통 49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프랑스는 독일군의 전차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따라 긴 요새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북서부 벨기에 국경에서 남동부 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약 760킬로미터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새선을 창안한 당시 프랑스 국방장관 앙드레 마지노(1877~1932년)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불렀습니다. 1927년에 착수해 10년 뒤인 1936년에 완성했는데, 총공사비는 160억 프랑이나 소요됐습니다. 전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골 벽을 이중으로 세웠고, 보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철조망 지대를 설치했으며, 다시 직경 6미터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발전실과 탄약고 그리고 작전실은 전부 70미터 지하에 설치했고 통신선도 전부 지하에 묻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화력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1940년 5월, 독일 기갑병단이 마지노선을 우회해 벨기에를 침공하여 프랑스로 진격함으로써, 결국 엄청난 기술과 인력, 그리고 자금으로 만들어진 프랑스 최고의 요새는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현대에 마지노선은 '최후방어선', '넘어서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만리장성, 트로이성 등 수많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구축한 요새 중 무너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 줄 수 없습니다.	
말씀 나누기	시편 121:1~8	
묵상포인트	누구나 인생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문제로 부터 눈을 들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가장 확실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로 여기는 그 일도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얼마든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어디며, 그는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고백했나요?(1~2절)	
적용하기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막막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만이 저의 참도움이십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 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저를 세밀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교만한 부자의 종말		날짜 : 9월 27일	
찬양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 563장 / 통일 찬송가 411장)			
통독		이사야 23장			
본문 내용		본장에 나타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압장의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앗수르의 침략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 경고는 지중해에서 무역 항해를 하는 상선들이 고통 중에 슬피 울게 도리라고 상선단을 부르는 데서 시작한다. 시돈과 두로가 소유한 부는 주변 나라들과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두로의 멸망은 주변 나라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1-5절). 다시 스와 구브로 사람들도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역시 슬퍼할 것이다(6-14절). 이후 두로는 다시금 무역의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 이번에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득이 될 것임이 나타나 있다(15-18절).			
생각해보기					
1		두로의 멸망과 회복 (1) 1-14절: 해상 무역을 통해 크게 치부하였으나 졸지에 멸망한 두로의 참담함과 두로의 멸망이 교만에 대해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애가 형식으로 기록함 (2) 15-18절: 두로의 심판에 이어 두로가 패망한지 70년만에 다시 회복하게 될것과 회복한 후 다시 무역으로 부를 얻어 여호와께 돌리게 될 것을 예언함 (3) 신구약 중간기 시대와 신약시대에 두로는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에게 물자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함. (4)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섭리하시되 특별히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한 구속사를 중심으로 섭리하신다.			
핵심 단어		1절. 두로. 아셀 지파에 근접한 고대의 견고한 성읍으로, 두로는 당시 해상무역으로 인해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강대국이었다. 4절. 구로하지. 군대와 부 등힘에 의한 형통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바다의 보장이란 바다의 안전한 장소나 안전한 수단 즉 항구를 뜻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악인이 당하는 수치	날짜 : 9월 24일
찬양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송가 531장 / 통일 찬송가321장)		
통독	이사야 20장		
본문 내용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동맹국들이 당할 최후를 예언하고 있다(1-3절). 즉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앗수르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을 통해 구원 받으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안겨 주게 되는 것이다(4-6절).		
생각해보기			
1	앗수르에 의한 애굽의 멸망 (1) 1-6절: 이사야가 3년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면서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수치를 당할것이고 애굽과 구스의 멸망으로 그들을 의지하던 유다 백성들이 크게 실망할 것임 (2) 본 예언이 완전 성취된 것은 BC. 607년 앗수르 왕 에살हत돈에 의해서임. 애굽을 마음 든든한 우방으로 생각했던 유다는 경악을 금할수 없는 일이었음. (3)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실로 허망할 뿐이고 절대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베를 끄르고 베헤온 고대에 염소 털로 만들어진 색이 어둡고 두껍고 거친 옷이었다. 3절. 벗은 몸. 고대에서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모든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	날짜 : 9월 25일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 / 통일 찬송가 190장)		
통독	이사야 21장		
본문 내용	2차 바벨론 멸망 예언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멸망 (1) 1-10절: 1차는 13:1-14:23에서 주어짐. 2차 예언은 엘람(바사)과 메대에 의한 바벨론 함락시의 공포와 바벨론 침략군의 위용, 그리고 이 멸망 예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예언의 신적 기원을 말해줌 (2) 11-17절: 두마(에돔의 대표 성읍)에 ‘아침이 오는 듯이 보이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는 말을 통해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아라비아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함 (3)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힘든 날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생각해보기			
1	2차 바벨론 멸망 예언과 에돔과 아라비아의 멸망 (1) 1-10절: 1차는 13:1-14:23에서 주어짐. 2차 예언은 엘람(바사)과 메대에 의한 바벨론 함락시의 공포와 바벨론 침략군의 위용, 그리고 이 멸망 예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예언의 신적 기원을 말해줌 (2) 11-17절: 두마(에돔의 대표 성읍)에 ‘아침이 오는 듯이 보이지만 곧 밤이 올 것이라’는 말을 통해 에돔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아라비아도 에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멸망할 것을 예언함 (3)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힘든 날일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자.		
핵심 단어	4절. 떨림이. 갑작스럽고 돌연적인 공포와 놀람을 의미한다. 5절. 기름을 바를지어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대적의 무기가 미끄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악인의 영원한 멸망	날짜 : 9월 26일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252장 / 통일 찬송가 184장)		
통독	이사야 22장		
본문 내용	본장에 나타나는 경고는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의 골짜기로 불려진다. 그 이상의 골짜기에는 앗수르의 침입을 받아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1-7절).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읍의 보수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이다. 멸망의 순간에도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의 소욕만을 채웠던 것이다(8-14절). 셉나와 엘리아김이 소개되고 있다. 셉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자신도 버려짐을 당하였고 엘리아김은 현명한 판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켰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15-25절).		
생각해보기			
1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 (1) 제13-23장까지 이방 10개국에 대한 예언을 진행하는 중에 남유다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삽입단락임 (2) 1-14절: 전혀 예기치 못한 때에 적군의 침입을 받고 혼비백산할 유다 백성들의 혼란상과 적군의 무참한 공격으로 인한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와 그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치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 그리고 그런 비참한 멸망의 원인으로서는 거듭된 심판 경고에도 회개치 않고 더욱 방탕했던 사실을 지적함 (3) 15-25절: 히스기야 시대의 국고 책임자인 셉나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 축재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경고와 셉나를 대신하여 등장한 엘리아김도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 전체의 유익보다는 자기 가문의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종국에는 타락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기록함 (4) 성도는 어느 곳에서 어떤 지위나 역할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핵심 단어	3절. 도망하였다가.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관원들이 침략을 받자 백성들을 팽개치고 도망가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5절. 분요. '파멸, 혼돈'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패망할 때 백성들이 크게 소동할 것을 가리킨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